

## 레노버, 2016~2017 회계연도 2 분기에 견실한 실적

- 분기 수익이 미화 112 억 달러로 전년 대비 8 퍼센트 감소, 분기대비 12 퍼센트 증가
- 미화 8 억 4200 만 달러의 손실을 본 지난 해 2 분기에 비해 세전 이익이 미화 1 억 6800 만 달러
- 미화 7 억 1400 만 달러의 손실을 본 지난 해 2 분기에 비해 순수익은 미화 1 억 5700 만 달러
- 시장 상황은 여전히 어려우며 레노버는 자체 전략을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는 중
- 각 분야 전문가인 새로운 업계 리더 3 명 회사에 합류
- 주당 기본 이익은 미국달러화로 1.42 센트, 홍콩달러화로 11.01 센트

베이징--([Business Wire/뉴스와이어](#))—레노버 그룹(Lenovo

Group)(홍콩증권거래소:0992)(PINK SHEETS: LNVGY)이 2016 년 9 월 30 일 마감한 2 회계분기 실적을 3 일 발표했다. 분기 수익은 미화 112 억 달러로 전년 대비 8 퍼센트 감소했지만 2016 년 6 월 30 일로 마감한 1 분기에 비해 12 퍼센트 증가했다. 2 분기 세전 이익은 미화 1 억 6800 만 달러로 미화 8 억 4200 만 달러의 손실을 본 지난 해 2 분기에 비해 실적이 크게 호전됐다. 마찬가지로, 순수익도 미화 7 억 1400 만 달러의 손실을 본 지난 해 2 분기에 비해 올해는 미화 1 억 5700 만 달러로 호전됐다.

PC 와 태블릿 시장 둘 다가 침체되고 스마트폰과 서버 부문은 아주 약간의 성장세를 보이는 등 관련 업계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시점에 레노버는 견실한 성과를 보였다.

위안칭(Yuanqing Yang) 레노버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는 “시장 상황이 여전히 어렵지만 우리는 견실한 실적을 올렸다. PC 및 스마트 디바이스(PCs & Smart Devices, 이하 PCSD) 사업은 강력한 수익성으로 선두적인 입지를 유지했고, 모바일 사업은 우수한 분기 대비 규모의 성장과 영업 이익률 개선을 보였으며 데이터센터 사업은 도전에 적극적으로 맞서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또한 업계 최고의 인재를 레노버에 영입하며 리더십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며 “우리는 새로운 위치를 점하는 데 있어 레노버의 비전, 전략, 팀 역량에 여전히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회사의 2분기 매출총이익은 미화 16억 달러로 전년 대비 2퍼센트 증가해 매출총이익률은 14.3퍼센트를 기록했다. 2분기의 영업이익은 미화 7억 8400만 달러의 손실을 본 전년 동기에 비해 미화 2억 1500만 달러였다. 이 분기의 기본주당이익은 미국달러화로 1.42센트, 홍콩달러화로 11.01센트였다. 2016년 9월 30일 기준 회사의 순부채는 미화 7700만 달러였다. 레노버 이사회는 홍콩달러화로 주당 6센트의 중간 배당을 신고했다.

### 새로운 리더 3명 회사에 합류

레노버는 또한 오늘 견고한 기존 팀을 보강하고 ‘디바이스+클라우드’ 기업으로의 여정을 지속할 목적으로 3명의 경영진 임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커크 스카우젠(Kirk Skaugen)은 데이터센터 그룹(Data Center Group, 이하 DCG)의 총괄부사장(Executive Vice President, 이하 EVP) 겸 사장으로 회사에 합류한다. 커크는 인텔(Intel)의 클라이언트 컴퓨팅과 데이터센터, 커넥티드 시스템즈 그룹(Client Computing, Datacenter and Connected Systems groups)의 수석부사장(Senior Vice President, 이하 SVP)을 역임했다. 알카텔-루슨트(Alcatel-Lucent)의 지적재산 EVP, 이스트맨 코닥(Eastman Kodak)의 사장 겸 법무 자문위원 등을 역임한 로라 과텔라(Laura Quatela)는 회사의 최고법률책임자 겸 SVP로 합류한다.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 아시아(Microsoft Research Asia)를 이끄는 상무이사 대리를 역임한 영 루이 박사(Dr. Yong Rui)는 최고기술책임자(Chief Technology Officer) 겸 SVP로 회사에 합류한다.

이러한 인사 개편과 함께 현재 DCG 부문의 EVP인 게리 스미스(Gerry Smith)가 그의 지식과 전문기술 및 레노버 글로벌 사업운용 및 레노버의 핵심 사업인 PC와 태블릿 사업운용을 이끈 입증된 이력을 활용해 PCSD 부문의 EVP 겸 COO로 자리를 옮긴다. 중국에서 모바일 비즈니스 그룹(Mobile Business Group, 이하 MBG)의 공동 사장 겸 SVP를 맡고 있던 쑤동 첸(Xudong Chen)은 글로벌 서비스(Global Services)의 SVP로 자리를 옮긴다. 지난 12개월 동안 쑤동은 중국 내 모바일 사업을 안정화시켰고 그곳에서의 경험을 활용해 세계적 수준의 고객 중심 서비스 조직을 확실히 구축할 계획이다. 쑤동이 맡고 있던 MBG 자리는 HR의 SVP였다가 MBG의 공동 사장 겸 SVP로 자리를 옮기는 지나 치아오(Gina Qiao)가 넘겨 받게 된다. 이전에 그녀는 중국에서 마케팅 팀을 이끌었고 수년 간 회사의 최고전략책임자(Chief Strategy Officer)로 일했다. 이런 배경과 깊은 식견은 중국 같은 핵심 성장 시장에서 우리의

포부를 지속적으로 펼쳐나가는 데 있어 가장 알맞은 역량이다. 신규 임명 관련 추가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사업 그룹 개요

PC와 태블릿 PC가 포함된 PC 및 스마트 디바이스 사업 그룹에서 레노버의 매출은 미화 78억 달러로 전년 대비 8퍼센트 감소했다. 세전 이익은 미화 4억 5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3퍼센트 증가했다. 세전 이익률은 중국과 북아메리카에서의 강력한 이익률에 힘입어 전년 대비 0.5포인트 이상 상승해 4.6퍼센트에서 5.2퍼센트로 증가했다.

레노버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점유율 증가를 보이며 21.5퍼센트의 시장 점유율로 14분기 연속 세계 1위를 유지했다. 전체 시장 감소율이 0.7퍼센트인 북아메리카에서도 레노버는 점유율이 14.7퍼센트 증가했다. 2분기에 레노버의 PC 출하량은 1450만 대로 전체 시장 감소율인 4.8퍼센트보다 낮은 전년 대비 3.2퍼센트 감소했다. 전년 대비 14.7퍼센트의 감소율을 보인 태블릿 시장에서 레노버는 괄목할 만한 19퍼센트 성장률을 보인 중국 내 출하량에서 볼 수 있듯 동종업계보다 아주 조금 더 좋은 성과를 보였다.

레노버의 모토로라 생산 제품과 레노버 브랜드 모바일폰이 포함된 모바일 사업 그룹(Mobile Business Group, MBG)의 2분기 매출은 미화 20억 달러로 전년 대비 12퍼센트 감소했으나 지난 분기에 비해 20퍼센트나 증가했다. MBG의 세전 이익률은 마이너스 7.7퍼센트로 미화 1억 5600만 달러의 세전 손실을 봤고 이전 분기 대비 4.4포인트 개선됐다.

2분기 MBG 제품 라인 출하량은 이전 분기에 비해 거의 25퍼센트 증가해 총 1400만 개였다. 레노버는 인도에서의 모바일 출하량이 전년 대비 15퍼센트 증가하는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인도 두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모바일 출하량을 늘려나갔다. 모토(Moto) 출하량은 모토 G(Moto G)와 새로운 모토 Z(Moto Z) 및 모토 모즈(Moto Mods)의 성공적인 출시 덕분에 이전 분기보다 거의 40퍼센트 증가했다.

서버, 스토리지,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를 포함하는 데이터센터 사업 그룹(Data Center Group, DCG) 부문의 2분기 매출은 미화 11억 달러로 전년 대비 8퍼센트 감소했다.

그러나, DCG 부문은 중국에서는 전년 대비 7 퍼센트,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12 퍼센트의 수익 증가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레노버의 글로벌 계정에서 또 한번 16 퍼센트의 강력한 분기 성장을 보였다. DCG 는 세전 이익률이 마이너스 13.1 퍼센트로 미화 1 억 4100 만 달러의 세전 손실을 기록했다.

레노버는 이 사업에 중점을 둔 실행 방안을 갖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부문 역량 및 채널 참여를 강화하고 훈련에 투자하며 고객 참여 확대를 위해 판매 구조를 재정비하고 있다. 우리는 또한 새로운 업계 파트너십을 구축하며 우리의 하이퍼스케일(hyperscale) 사업에서 보여줬듯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차세대 IT 를 구축하고 있다.

## 지리적 개요

중국에서 2 분기 통합 매출은 미화 32 억 달러로 전년 대비 4 퍼센트 감소하여 회사의 전 세계 총매출의 29 퍼센트를 차지했다. 세전 이익은 전년 대비 아주 약간 증가해 미화 1 억 5800 만 달러인 한편 세전 이익률은 4.9 퍼센트로 거의 1 포인트 증가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2 분기 매출은 미화 19 억 달러로 전년 대비 4 퍼센트 감소해 회사의 전 세계 총매출의 17 퍼센트를 차지했다. 세전 이익은 미화 200 만 달러로 감소하는 한편 세전 이익률은 0.1 퍼센트로 거의 1 포인트 하락했다.

유럽과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의 레노버 2 분기 통합 매출은 27 억 달러로 전년 대비 14 퍼센트 감소해 회사의 전 세계 총매출의 24 퍼센트를 차지했다. 이 지역은 미화 6500 만 달러의 세전 손실과 2.4 퍼센트의 세전 손실율을 기록했다.

미주 지역에서 레노버의 2 분기 통합 매출은 미화 34 억 달러로 7 퍼센트 감소해 회사의 전 세계 총매출의 30 퍼센트를 차지했다. 이 분기의 세전 이익은 미화 7300 만 달러의 손실을 본 지난 해에 비해 미화 2000 만 달러였다. 세전 이익률은 0.6 퍼센트였다.

레노버(홍콩증권거래소 HKSE: 992)(ADR: PINK SHEETS: LNVGY)는 460 억달러 규모의 포춘지 선정 500 대 기업의 하나이며 소비자, 상업 및 기업 기술을 제공하는 선도기업이다. 고품질, 보안 및 서비스를 자랑하는 레노버의 제품 라인에는 PC(전설적인 Think 브랜드와 멀티모드 YOGA 브랜드 포함), 워크스테이션, 서버, 스토리지, 스마트

TV와 스마트폰(모토로라 브랜드 포함), 태블릿 및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한 모바일 제품군이 있다. 자세한 정보는 링크드인, 페이스북, 트위터 또는 웹사이트(www.lenovo.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레노버 그룹

### 재무 요약

2016년 6월 30일 마감된 회계 분기

(백만 달러, 주당 데이터 제외)

	Q2 16/17	Q2 15/16	Y/Y CHG
수입	11,231	12,150	-8%
총수익	1,607	1,575	2%
총이익률	14.3%	13.0%	1.3 pts
영업비용	(1,392)	(2,359)	-41%
영업수익비	12.4%	19.4%	-7.0 pts
영업이익/(손실)	215	(784)	N/A
기타 비영업 비용	(47)	(58)	-18%
세전 이익/(손실)	168	(842)	N/A
세액	(16)	125	N/A
당기 이익/(손실)	152	(717)	N/A
비지배 이익	(5)	(3)	71%
지분 보유자에게 귀속되는 이익/(손실)	157	(714)	N/A
주당 이익(달러화 센트)			
기본 1.42	(6.43)	N/A	
희석 1.42	(6.43)	N/A	

비즈니스 와이어 원문 보기(businesswire.com):

<http://www.businesswire.com/news/home/20161103005592/en/>

[이 보도자료는 해당 기업에서 원하는 언어로 작성한 원문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다. 그러므로 번역문의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서는 원문 대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처음

작성된 원문만이 공식적인 효력을 갖는 발표로 인정되며 모든 법적 책임은 원문에 한해 유효하다.]

#### 언론문의처

레노버(Lenovo)

홍콩

안젤라 리(Angela Lee)

+852 2516 4810

angelalee@lenovo.com

미국

레이 고먼(Ray Gorman)

+1 919-257-6325

rgorman@lenovo.com